

한전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 마중물 되겠다”

‘세계 최대’ 신안 단지 성공 위해 44개 공공기관·기업과 협력

한국전력이 신안에서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44개 공공기관·기업과 손잡았다.

한전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내 해상풍력 관련 44개 기업과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 참여기업은 한국해상풍력(주)과 전남개발공사 등 개발사 9곳, 한전KDN·한전KPS·효성중공업(주)·LS전선·대한전선(주)·두산중공업(주) 등 제조 및 서비스사 26곳, 시공사 3곳, 엔지니어링 6곳 등 총 44개사이다.

참여사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서 해상풍력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현재의 해상풍력 정체 상태를 벗어나려면 개별기업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기업 간 기술 및 정보 공유 등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해상풍력 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에 협력 ▲해상풍력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해의 해상풍력 사업 공동 진출을 위한 한전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 간 정보 공유 등 지속적 협력 등이 있다.

이날 행사에서 한전 해상풍력사업단은 현재 한전이 개발 중인 총 2.7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신안 1.5GW, 전북 서남권 1.2GW)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신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남도와 협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기간은 오는 2023년부터 2029년까지로, 신안군 입자도 서쪽 30km 해상에 9조7000억원 사업비를 들여 발전단지를 구축한다.

아울러 향후 해상풍력 업계와 함께 해외시장 개

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의 대규모 해외사업 경험과 수준 높은 송배전 기술, 풍부한 연구개발(R&D) 자산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9월 해상풍력사업단을 새로 출범하는 등 해상풍력 사업을 키우고 있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상 한전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특수목적회사(SPC) 출자·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소요면적이 10분의 1~20분의 1 수준으로 작고, 이용률이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태양광 이용률은 15%, 육상풍력은 25%, 해상풍력은 30% 수준이다.

지난 2019년 기준 광주·전남 풍력 발전량은 488

만8839MWh로, 전국 발전량(268만MWh)의 5분의 1(18.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 비중(1.0%)의 18배 가까운 수준이다. 2019년 전남 풍력 발전량은 전년보다 38.6% 증가했으며, 이는 전북(145.5%)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오른 수치다. 전남 풍력 발전 증가율은 지난 2014년 349.3%에 달했는데, 이후 2015년 36.6%, 2016년 47.6%, 2017년 29.7%, 2018년 15.0%, 2019년 38.6% 등으로 증가 폭이 다소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벤츠 첫 전용 전기차 더 뉴 EQS 공개

1회 충전에 770km 주행

메르세데스-벤츠는 최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첫 모델 ‘더 뉴 EQS’를 공개했다.

더 뉴 EQS는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MEA)의 이점을 충실히 반영한 외관 디자인에 다양한 첨단 기술과 디지털 요소를 갖춘 첫 럭셔리 전기 세단이다.

활 형태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내연기관차와 차별점을 뒀고, 실내에는 계기판 전체 패널이 하나의 와이드 스크린이 되는 ‘MBUX 하이퍼스크린’이 적용돼 유리 디스플레이가 마치 파도처럼 펼쳐진 듯한 인상을 준다.

더 뉴 EQS는 107.8kWh의 배터리가 탑재돼 최대 385kW의 출력을 발휘하며, 1회 충전시 최대 77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EQS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뉴 EQS는 200kW 급속충전기로 15분만 충전하면 최대 300km를 주행할 수 있다. 또 EQ 모델 최초로 ‘플러그 앤 차지’ 기능이 탑재돼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충전과 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최대 350개의 센서로 거리와 속도, 가속, 조향 상태는 물론 감수량과 온도, 탑승객의 유무, 탑승자 화법까지 기록해 차량 제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더 뉴 EQS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하며 자동 발렛 주차가 가능한 ‘인텔리전트 파크파일럿’ 기능도 탑재됐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화재 진압·심폐소생술 배우요 롯데아울렛 남약점은 ‘가정의 달’을 맞아 무안소방서와 심폐소생술과 화재 진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오는 5월5일까지 운영된다. <롯데쇼핑 제공>

광주·전남중기청-광주조달청 ‘중기 혁신조달’ 협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광주지방조달청은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동천동 광주·전남중기청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장대교 광주·전남중기청장장과 백호성 광주조달청장은 이날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 지원 ▲공공조달 통계 협력 확대 ▲해외수출 지원 협력 등에 힘쓰기로 했다.

두 기관은 ‘공공구매 촉진협의회’를 함께 열어 공공구매 설명회, 구매 상담회, 공공구매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또 혁신장터, 나라장터 쇼핑몰, 벤처나라 등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수요기관 대상 혁신조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회 공동 개최 등 중소기업의 혁신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화콘텐츠 분야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021년 문화콘텐츠 분야 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부문은 ▲기획창작스튜디오 파일럿 제작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등이다.

‘기획창작스튜디오 파일럿 제작지원’은 총 지원금 규모는 8억5000만원이다. 애니메이션, 웹툰 예비 창업팀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응모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파일럿 제작지원’은 6개 내외의 과제에 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역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신규 기획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웹툰 파일럿 제작

지원’은 팀당 5000만원 규모로 5개 과제 안팎을 지원할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은 사전기획을 완료한 본편 제작 단계의 완성형 애니메이션을 발굴·지원한다.

TV시리즈 또는 극장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미디어 플랫폼에 적합한 애니메이션이 해당한다. 지원 규모는 총 14억4000만원으로, 과제당 최대 5억원, 3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감콘텐츠 등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지원’은 과제당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총 7억4000만원 규모로 3개 기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git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또복권 (제95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14	15	24	40	41	3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015,312,891		8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3,605,563		75		
3	5개 숫자일치	1,606,882		2,502		
4	4개 숫자일치	50,000		123,802		
5	3개 숫자일치	5,000		2,072,896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